

효성 샷별 윈드오케스트라, 전국 관악 경연대회 2관왕

제48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금상

제7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회 2년 연속 금상

효성중학교(교장 정석호)는 효성 샷별 윈드오케스트라가 ‘2024 제48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금상, ‘2024 제7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효성 샷별 윈드오케스트라는 2020년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결성한 자생 오케스트라로, 매년 연주회 개최를 꾸준히 이어오며 2021년 제45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 동상,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 합주

경연대회 금상, 2023년에는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금상, 대구 국제 합주 경연대회 금상(교육감상)을 수상하고 가정의 달 맞이 ‘제1회 작은 음악회’ 및 창단 기념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5월 달서구청 초청 음악회에 참가했으며, 이어 가정의 달 맞이 ‘제2회 야외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일주일간 진행된 여름 관악 캠프를 통해 악기 연주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 교우관계, 공



제7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대회

동체 의식을 함양해 전국 관악 대회 2관왕의 기쁨을 안았다.

한편, 효성 샷별 윈드오케스

트라는 가을에 예정된 대구 연습실의 불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자료제공:효성중학교〉



‘창의력 통통’ 상상력 가득한 작품

제46회 대백 어린이 미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대구달성도서관, 9월 26일(목)까지 도서관 1층

대구달성도서관(관장 정현호)은 오는 9월 26일(목)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46회 대백 어린이 미술 공모전 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백에서 즐거웠던 일, ▲똑똑한 로봇친구와 함께하는 미래 세상,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들의 자세, ▲나라를 지킨 우리 지역 영웅 등 4가지 주제로 ‘대백 어린이 미술 공모전’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표현한 40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대백 어린이 미술 공모전’은 대구·경북 어린이들의 예능 자질 향상과 건전한 취미 및 정서 생활을 가꿔주기 위해 대구백화점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작은 계성초 4학년 이서연 학생의 ‘고래와 함께 떠나는 환경여행’이며, 멸종위기 동물 고래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힐링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주말 09:00~17:00)이며,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독서문화실(☎231-2172)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성도서관〉



대서초 ‘2024 비긴어게인 아름다운 대서인의 밤’

대구대서초등학교(교장 배연옥)는 지난 6일(금)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아름다운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2024 비긴어게인 아름다운 대서인의 밤’을 개최했다. ‘2024 비긴어게인 아름다운 대서인의 밤’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및 가족, 교직원 등 총 77가족(200여 명)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가족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자료제공:대구대서초등학교〉



대구남부교육지원청, 아동양육시설 에덴원 위문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호)은 추석명절을 맞아해 지난 9일(월)에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에덴원(남구 효서길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전달해, 아이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에덴원 이성진 원장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 더욱 힘이 난다. 덕분에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료제공:대구남부교육지원청〉